



1. 전시개요

전시제목	《동시대의 서사》	
작 가 명	박병래, 박유아	
일 정	2025. 9. 5 (금) - 10. 31 (금)	
전시장소	갤러리 서린 스페이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제니스 스퀘어 A타워 608호	
관람시간	화 - 토 (오전10:00 - 오후18:00)	
보도자료관련문의	갤러리 서린스페이스 051 742 7422 galleryserene@gmail.com www.instagram.com/gallery_serenespace www.galleryserenespace.com	신민교 실장

2. 전시내용

1990년대부터 오늘날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며 독특한 시대적 풍경을 그려왔다. 도시와 지역은 산업화와 세계화를 통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재편되었으며, 이민과 이동은 문화적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갤러리 서린 스페이스의 하반기 기획전시 《동시대의 서사》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한국의 지역성, 이주와 정착의 흔적,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된 개인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탐구한다.

90년대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사고가 교차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도시화는 지역 공동체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고, 그로부터 이어진 2000년대와 2010년대는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로 인해 사람과 공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는 시기였다. 2020년대에 들어선 지금,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 사건은 이민과 이동의 양상을 다시금 재구성하며, 개인의 정체성과 장소의 의미를 새롭게 질문하게 만들었다. 《동시대의 서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동시대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박병래와 박유아, 두 작가의 2인전으로 구성된다. 두 작가는 각기 다른 접근을 통해 도시와 지역, 이주와 정착, 기억과 정체성의 문제를 탐색하며, 그 안에 깃든 서사적 단층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시대적 변화가 만들어낸 풍경과 사람들의 삶에 주목한다. 지역과 도시는 과거와 현재의 기억을 담은 공간으로서, 이민과 이주는 그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행위로서 작품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각 작품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흔적과 장소성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그로부터 형성된 정체성이 어떻게 공동체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새겨놓은 흔적을 돌아보고, 변화의 경계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동시대의 서사》는 우리가 지나온 길뿐 아니라 앞으로의 지형을 함께 그려나가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서문 | 신민교 실장



사진제공 | PS CENTER

ABOUT. 박유아 Park Yooah

1961년 서울에서 출생한 박유아는 이화여대에서 동양화를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를 받았으며, 이후 도미하여 하버드대학과 컬럼비아대학에서 수학하였다. 그 동안 전공인 수묵뿐만 아니라 세라믹, 메탈, 섬유 같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조각이나 멀티미디어 설치 및 퍼포먼스까지 작업 영역을 확장하여왔다. 1990년 첫 개인전을 뉴욕에서 개최한 이래 서울, 동경, 뉴욕, 시카고, 모스크바, 멕시코시티, 베니스 등 국제적으로 다양한 전시 공간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박유아는 하버드대학과 텍사스 달라스 소재 부룩헤이븐대학(Brookhaven College)에서 드로잉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미국대학 드로잉교과서(Drawing: A Contemporary Approaching)에 드로잉 작품이 실리기도 했다.



Home-70/73NTHRLNDS s

박유아

34 x 28 (cm)

Pigment on Jangji

2025



70/73NTHRLNDS

61 x 46 (cm)

Pigment on Jangji

2020



Home-84/88ASTRL

120 x 90 (cm)
Pigment on Jangji
2025



Home-74/80US

28 x 34 (cm)
Pigment on Jangji
2024



74/80US

61 x 41 (cm)
Pigment on Jangji
2019



Home-60/61US2

34 x 28 (cm)
Pigment on Jangji
2024



60/61US2

61 x 46 (cm)
Pigment on Jangji
2020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쉼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작가의 집에 걸려 있던 작품을 마주하는 순간, 이 노래가 떠올랐다.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던 날에 차가운 맨해튼 거리를 지나 따듯한 실내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벽에 걸린 그림이었다. 오롯이 자리한 초상들은 입양아로 불리며 정체성과 언어의 경계에서 혼란을 겪었을 이들의 내면을 환기한다. 〈Übermensch〉연작에서는 말하고, 응시하고, 느끼고, 고개를 가웃거리거나 어깨를 들썩이는 듯한 생동이 느껴지는 얼굴이 저마다 다른 배경색과 함께 자리한다. 몇 차례의 붓질을 거쳐 만들어지는 형태는 뼈에서 피로, 피에서 살로 옮겨가며 생기를 찾고, 가장 그 사람답다고 여겨지는 색은 고유한 그림자가 되어 주변을 감싼다.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Adelbert von Chamisso의 『그림자를 판 사나이』에서 그림자를 잃은 이가 그저 인간에 머물며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야기에 대응하듯, 이 초상은 고유한 실존을 찾기 위한 시도이자 공감으로서 빛을 낸다. 작품 속의 인물들은 탄생의 순간 마주한, 뿌리가 되었던 언어와 문화를 떠나 바깥으로 비자발적인 이주를 경험하며 이방인이 되었다. 그러나 한 점의 그림이 된 이들에게서 감도는 공기는 어쩌면 보는 이들을 이방인으로 만들 만큼 온전하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지울 수 없는 대상화와 작가의 시점은 여기서 대상의 주체성을 흐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존중과 애정의 시선으로 고스란히 형상을 찾는 개입을 통해 온전한 타인과의 대화를 향해 나아간다.

가곡 ‘즐거운 나의 집’을 들으면 박공지붕 아래,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 모여 있는 가족이 떠오른다. 안정감과 행복감이 여실히 드러나는 이미지이다. ‘집’이라는 장소가 내가 나고 자란 곳, 나의 부모가 나고 자란 곳, 그곳에 대한 기억과 경험의 초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집’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정체성과 소속감을 상징한다. 〈Übermensch〉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Home〉연작에서 그림 속의 그림이 되어 화면의 한 권을 구성한다. 작가는 감각적이고 모던한 서양식 집 안에 초상이 걸려 있는 그림을 한지 위에 분채로 표현하고, 그림 속 인물의 국적과 입양 연도를 마치 아이디처럼 제목으로 부여했다. 자신이 그린 초상화를 다시금 자신이 좋아하는 공간 속에 인테리어나고 그리는 행위는 타인을 사적인 공간에 들이며 바깥에서 내부로 초대하는 행위이다.

한지에 온전히 흡수된 안료는 직접적이기보단 간접적이고 뜨겁기보단 따듯한 느낌을 주지만, 캔버스 위에 구성된 장면은 묘하게 스산하다. 작가의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태도는 이 따듯하고 스산한 느낌이 공존하게 하는 이유이며 나아가 전통적 규범과 정체성을 넘어서 삶에 대한 작가의 태도와 연결된다. 작품은 고유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다원적이고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말하며, 타인에 대한 순수한 존경을 표현한다.

한국의 현대사를 온전히 겪어낸 박유아는 가족(〈르쌍띠망-효〉, 2012)에서 부부와 연인(〈뮤직박스〉, 2013)으로, 그리고 타인(〈위버멘쉬〉, 2020)으로 시선을 옮기며 가깝고도 먼 관계 안에서 내재된 자아를 발견하고 드러낸다. 담담한 표정으로 처절하게 표현한 가족과의 식사는 실존에 관한 물음을 내밀하고도 적나라하게 건넸고, 작가 본인을 포함한 주변의 부부와 연인의 동행을 그린 작품에서는 얼굴을 흐릿하게 덮어서 쉽게 보이지 않는 숨겨진 표정과 어려움을 드러냈다. 작업은 작가 개인이 경험한 자아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민에서 타인에 대한 온전한 환대로 나아간다. 그리고 잠식되어 있던, 동시에 오랫동안 간절히 염원했던 고유한 언어는 둘러싸인 관계 속을 탈피하여 ‘나’라는 정체성에 대한 여정의 종착점으로 향한다.

작업은 결국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한 작가 내면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성과 삶에 대한 탐구로 연결된다. 박유아는 공간과 장면을 그려내는 과정을 통해 인간이 의식하는 뿌리, 그 존재의 복잡함과 심리적, 정신적 가치를 양가적으로 드러낸다. 흐릿했던 얼굴이 낯선 이들과 마주하며 또렷해지는 과정은 타인을 향한 환대이자 곧 나 자신을 향한 환대이다.

박유아 *Park Yooah*

1961년 서울 출생

1987-1989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드로잉 수료 과정 수료

1986-1987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미술사학 수학 (수학 및 드로잉 학습 기초 과정 포함)

1986 이화여대 동양화과 석사

1984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학사

개인전시 *Solo*

2025 '즐거운 나의 집', PS CENTER (서울 중구) — 입양인 초상 및 집 풍경 전시

2021 단순한 진심: 51 Lives',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2013 오르골이 있는 풍경', 갤러리 옵시스 아트, 서울 소격동

2012 '르쌍띠망-효', 옵시스 아트, 대한민국 서울

2009 'Communion/Constellation', Galleria Multigraphic, 이탈리아 베네치아

2008 'Last Supper', Zone:Chelsea Center for the Arts, 미국 뉴욕

2006 'Writing in the Void', The Central House of Artists Museum, 러시아 모스크바

2006 'Writing in the Void', The Center for the Architecture and Design, 멕시코 멕시코시티

2004 '63 Cubes', ZONE: Chelsea Center for the Arts, 미국 뉴욕

2003 'Homage', 가나인사아트센터, 대한민국 서울

2002 'Rite of Passage', 가나인사아트센터, 대한민국 서울

2001 Andrew Bae Gallery, 미국 시카고

2000 Hudson River Gallery, 미국 뉴욕

1999 진화랑, 대한민국 서울

1998 Space Untitled, 미국 뉴욕

1997 Shirota Gallery, 일본 도쿄

박영덕 화랑, 대한민국 서울

1996 갤러리 시몬, 대한민국 서울

1995 갤러리 서림, 대한민국 서울

갤러리 인, 대한민국 서울

1994 East-West Cultural Studies, 미국 뉴욕

1993 박여숙화랑·삼풍갤러리, 대한민국 서울

1990 Jadite Galleries, 미국 뉴욕

단체전 *Selected*

2024 '차이의 미학',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대한민국 서울

2024 'Void in Writing', 제니퍼 방 갤러리 한남, 대한민국 서울

2023 'A New Family', 뉴욕한국문화원, 미국 뉴욕

'New York Peony', Studio Artego, 미국 뉴욕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대한민국 목포

2022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지로 접은 비행기’, 인천아트플랫폼, 대한민국 인천

‘레어아이템’, 대한민국 서울

2020 ‘Peaceful Warriors in Museum’, 조은정 기획 온라인 전시

‘해제解題: 금기어’, 여수국제미술제, 대한민국 여수

2019 ‘One Breath – Infinite Vision’, 뉴욕한국문화원, 미국 뉴욕

2018 ‘Beyond Tradition: Contemporary Reflections in East Asia’, The Carolyn M. Wilson Gallery,
University of South Florida, 미국 탬파

‘Arirang Grace: Between Dislocation & Settlement’, Hammond Museum and Japanese
Stroll Garden, 미국 뉴욕

2017 ‘Embrace or Revel?; Traditional Asian Art Techniques in Contemporary Practice’, Amelli
A. Wallas Gallery, SUNY Old Westbury, 미국 뉴욕

‘True Grit’, Baahng Gallery, 미국 뉴욕

‘Spell’, Dillon + Lee Galley, 미국 뉴욕

2016 ‘Red Monkey’, Baahng Gallery, 미국 뉴욕

2015 ‘KOREA’, Jorgenson Gallery, University of Connecticut, 미국 맨스필드

‘하얀 올림 - 한지의 정서와 현대미술’, 뮤지엄 산, 대한민국 원주

‘NonSelf/NonSite’, Art Mora, 미국 뉴욕

2014 ‘Double Mirror’, American University Museum, 미국 워싱턴 D.C.

‘KOREA’, Five Myles, 미국 브루클린

‘Shades of Time’, Queens Museum of Art, 미국 뉴욕

‘Shades of Time’, Korean Cultural Service, 미국 뉴욕

2013 ‘판타지-월비 데어’, 대구예술발전소, 대한민국 대구

2011 ‘르쌍띠망-효’, 퍼포먼스, 창원아시아미술제, 대한민국 창원

2009 ‘Performance, East-West’, Cafe Quadri, 이탈리아 베네치아

2007 ‘ZC Collections’, Zone:Chelsea Center for the Artists, 미국 뉴욕

2006 ‘ZC Collections’, Zone:Chelsea Center for the Artists, 미국 뉴욕

‘김선두, 박성태, 박유아’, 동산방화랑, 대한민국 서울

2005 ‘Material Matters’, ZONE: Chelsea Center for the Arts, 미국 뉴욕

2004 ‘Korean Contemporary Art’, Forum Gallery, 미국 델러스2003 ‘Best Star, Best Artist’, 가나인사아트센터, 대한민국 서울

‘Brushworks’, Andrew Bae Gallery, 미국 시카고

2002 ‘Works on Paper’, 미국 뉴욕

2001 ‘Works on Paper’, 미국 뉴욕

‘Art of Pacific Asia’, 미국 뉴욕

‘경기세계도자기엑스포’, 대한민국 경기

2000 ‘Works on Paper’, 미국 뉴욕

‘Art of Pacific Asia’, 미국 뉴욕

1998 ‘시몬의 다섯 친구들’, 갤러리 시몬, 대한민국 서울

1997 'Visual Point of 97 Korean Art and Grouping', Gallery Sang, 대한민국 서울

'Image of Contemporary Art', 예술의전당, 대한민국 서울

1996 'Model of Contemporary Art', Jeehyun Gallery, 대한민국 서울

1995 'Vulnerability', Gallery Dahn, 미국 뉴욕



사진제공 | 토탈미술관

ABOUT. 박병래 Park Byounglae

1974년 전라남도 여수에서 출생한 박병래는 홍익대학교 회화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독일카셀예술대학교 (Kunsthochschule Kassel)에서 조형예술 석사 졸업하였다. 그의 작업은 영상과 설치를 중심으로 하며, 유년기의 기억과 놀이, 역사적 장소와 사회적 맥락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작가는 회화적 감성과 시적 서사를 바탕으로 영상, 구조물, 오브제, 퍼포먼스를 넘나드는 다매체적 접근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기억을 탐색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외 주요 도시에서 개인전을 개최해왔으며, 대표작으로는 근현대사의 흔적을 우주인 캐릭터 '째보'를 통해 은유적으로 탐색한 《째보리츠키 포인트》, 소비 사회의 신화를 비틀며 구성한 《하이테크 시리즈》 등이 있다. 박병래는 미디어가 생산하는 환상과 시대의 불확실성을 재구성하며, 기억 없는 세대를 위한 놀이적 아카이빙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서울시립미술관, 아르코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 주요 기관에서 전시를 가졌으며, 아트선재센터·레지던시 기관 등에서 창작 및 연구 활동을 병행하였다. 박병래의 작업은 현대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감각, 장소성, 정체성의 문제를 섬세하고 은유적으로 제기하며, 한국 동시대 미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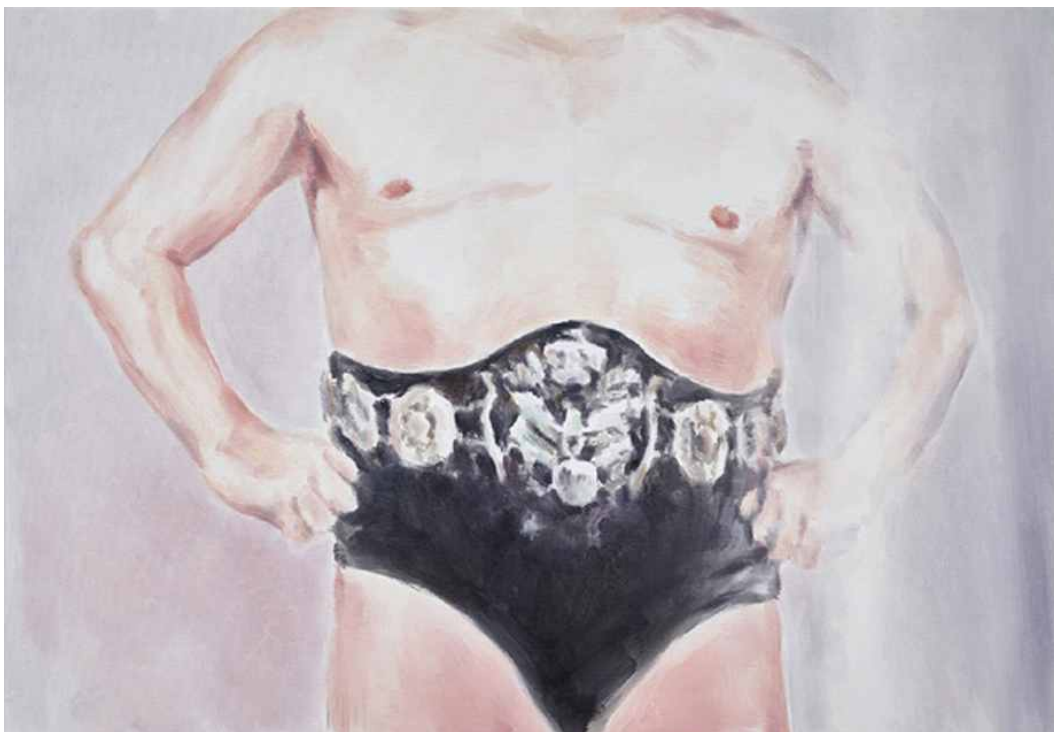
블루하이웨이

박병래

162.2 x 130.3 (cm) / 100F

Oil on linen

2024



챔피언

80.3 x 116.8 (cm) / 5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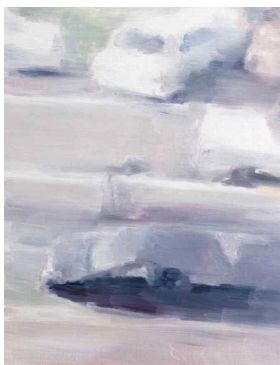
Oil on canvas

2023



행렬

80.3x100(cm)/ 40F
Oil on Linen
2024



여름캠프 I

34.8 x 27.3 (cm) / 5F
Oil on linen
2024



여름캠프 II

34.8 x 27.3 (cm) / 5F
Oil on linen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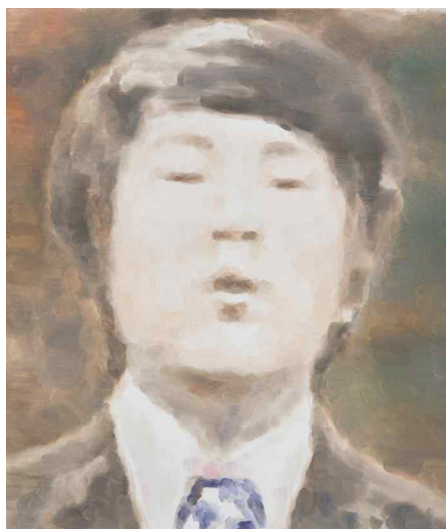


축제 I

72.7 x 90.9 (cm) / 30F

Oil on linen

2024



꽃

박병래

53 x 45.5 (cm) / 10F

Oil on canvas

2021

- 팬데믹이 조금 진정되어 가던 2022년 2월, 국내 뉴스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유럽의 동쪽으로 군인들이 이동하는 사진 이미지들이 국제 뉴스에 띄엄띄엄 흘러나왔다. 그리고 며칠 후 유럽의 한 지역에서 국지전이 발생했고 곧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그에 따른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들은 지리적 거리감을 상쇄시키기에 충분했고 나는 수개월간 전쟁의 빠른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SNS에 일상과 회복의 이미지를 주기적으로 업로드했다.

-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신문기사를 통해 새벽에 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의 행렬 사진을 보았다. 전쟁을 피해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이들을 남겨두고 피난길에 오른 모습이었다. ‘저들은 언제쯤 다시 식탁에 둘러앉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사진을 마주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다. 일상의 상실은 나로서는 쉬이 상상이 되질 않는다. 그날 새벽처럼 그 끝이 보이지 않던 자동차 행렬이 아주 오래전 언젠가도 있었다. 1963년 여름, 미국의 한 시골 농가에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3일 동안 노래를 불렀다. 사랑, 자유, 평화와 공존을 노래하며 서로에게 자신의 좁은 어깨를 내어주고 기대었다. 그날도 도로는 어딘가로 향하는 차량들의 행렬로 가득했다.

- 에릭 로메르(Eric Rohmer)의 영화에는 식탁에서의 대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지나칠 만큼 일상적인 대화와 평범한 구도의 롱테이크로 인해 그 장면들은 영화 속 시간과 공간임을 인지함에도 그 경계가 모호해져 과거 내 기억 속 어디쯤으로 인식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식탁을 아우르던 빛 한 조각, 바람소리 한 조각, 음식과 사람들, 그 작은 한 조각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다시 돌아오길 마음속으로 바랄 때가 있다. 아마도 내 주변의 풍경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됨을 감지할 만큼의 나이를 먹어서인지 가끔 이런 부질없는 상상에 휩싸이곤 한다.

- 작품의 소재로 사용되는 이미지들은 대부분 과거 TV, 신문, 잡지, 영화 등으로부터 차용된다. 현실 속의 미디어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은 그 과잉된 양과 속도에 의해 접촉과 동시에 증발해 버린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미지들 중 극소수의 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흥집, 예술적 접근이 가능한 일종의 틈을 제공하고 작업의 동기부여를 주게 된다. 그 예술적 유희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 지속적인 환기와 호출 즉 기억 속 미디어로의 접속이다.

- 과거의 미디어로부터 소환된 이미지들은 내게는 기억을 함유한 서사로 어떠한 사물의 형태에 가깝다. 물론 그것은 기억이기에 불안정함을 내재한다. 하지만 그 과거의 개인적인 서사에 현재성을 부여함으로 특별한 재현물로 되살아난다. 오늘을 결정지은 과거의 역사적 지점들은 나에게 중요한 순간으로 인식되고 그 순간들을 현재와 연결하며 서로 다른 시간의 미디어를 오가며 접속하고 호출하는 방식을 예술 언어로 삼고 있다.

- 어릴 적 하룻길에서 만나는 논에는 봄이면 물이 가득 차고 갖가지 곤충들이 스쳐가며 물파장을 만들어냈다. 논두렁에 쪼그려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갖가지 크기의 물파장을 쫓아 보고 있었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을 구상하며 나는 생성과 소멸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물파장의 모양새처럼 그날의 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의 행렬 이미지들로부터 다음 이미지들을 끌고 왔다 사라지고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하였고 내 기억 속의 어느 지점, 역사적인 의미였을 그 이미지들을 현재와 마주 놓으며 은유적이고 비밀스러운 그들 간의 순환하는 공명에 집중하였다.

- 우리 공동체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그 여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만약 있다면 마땅히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불안과 공존하는 망각에 의존한 일상과 그것이 빚어낸 불면의 밤, 위태로운 우리 사회를 외면하고 말을 삼킨 자의 모습에서 여전히 우리 공동체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지점은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들, 연약하고 아름다운 그것들을 구원하는 것일 것이다. 집 거실 선반에는 1982년 어느 봄에 촬영한 통통한 얼굴살이 가득한 붉은 셔츠와 반바지 차림의 국민학생 남자아이가 차렷 자세로 서있다. 아침이면 나는 그 아이를 보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한다. ‘오늘도 안녕하니?’

박병래 *Park Byounglae*

1974년 전라남도 여수 출생

2007 카셀 예술대학 조형예술학과 석사 졸업, 카셀, 독일 (Professor Bjoern Melhus)

200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학사 졸업, 서울, 한국

개인전시 *Solo*

2024 블루 하이웨이 (아터테인, 서울, 한국)

2023 파랑새:존 (플레이스막2, 서울, 한국)

2021 말더듬 (아터테인, 서울, 한국)

2011 Zeborskie Point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 한국)

2010 프로젝트 옥상 - 박병래 개인전 (인사동 금좌빌딩, 서울, 한국)

2009 Good Bye Siege (스페이스 크로프트, 서울, 한국)

2006 Talks with Me (갤러리 슈텔베르크, 카셀, 독일)

단체전 *Selected*

2024 DMA 캠프 2024, 최애: 내가 혹시 강패의 순정을 꿈꾸고 있는 것일까? (대전창작센터, 대전, 한국)

계슈탈트 붕괴하기 (공간 힘, 부산, 한국)

2022 서울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기획전시 <3650 Storage-인터뷰> (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블루아트페스타 <로드쇼: 여수에서 신안까지> (GS칼텍스 예울마루 장도전시관, 여수, 한국)

YIAF 2022-여수국제미술제 (여수엑스포전시홀, 여수, 한국)

2021 거울속의 거울 (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2020 기획전시 검은해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한국)

2019 atm 2019 - audio trading manual 2019 (문화비축기지, 서울, 한국)

2017 Video Portrait (토탈미술관/The Stream 공동주관, 서울, 한국)

2015 공간의 탐닉 (부천 삼정동 조각장, 부천, 한국)

2014 도시의 빛-오늘풍경 전 (서울시민청 갤러리, 서울, 한국)

제1회 청주 국제 미술제 (쉐마미술관, 청주, 한국)

공간을 점령하라! (갤러리 정미소, 서울, 한국)

2013 영화적 발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한국)

문화역서울 284 즉흥상설-고수पुर (문화역서울 284, 서울, 한국)

2012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부산문화회관, 부산, 한국)

Polly - Politic (쿤스트독, 서울, 한국)

2011 아시아프 특별전-미디어아트, 방법과 정신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Happy Window (아트센터 나비, 서울, 한국)

2010 Bibliotheque (KT&G 갤러리 상상마당, 서울, 한국)

Media season in Heyri 2010 (아트팩토리, 경기도, 한국)

2009 서교육십 2009 (KT&G 갤러리 상상마당, 서울, 한국)

Room 19 (대만 국립 관두 미술관, 타이페이, 대만)
2008 Island 649-11 (LIG 아트홀, 서울, 한국)
2007 field of vision (갤러리 쿤스트 운트 바우슬러서라이, 라이프찌히, 독일)
SURVEY (아니타 베커스 갤러리, 프랑크푸르트, 독일)
0 erotic (Stellwerk, 카셀, 독일)
2005 Privacy 101, 9th 이스탄불 비엔날레 (이스탄불, 터키)

비디오 *Video Solo Shows*

2019 EXIS 2019 - 서울 국제 실험영화 페스티벌 Solo Screening (아트선재센터, 한국)
2018 인디포럼 2018 기획초대전 (시네마테크 서울아트 시네마, 서울, 한국)
2016 The Stream - 박병래 Video Solo Show (The Stream, 서울, 한국)
2012 Rendering - Artist Film & Video Research Program (예술공간 돈키호테, 순천, 한국)
2009 박병래 Video Solo Show (대안영상문화제작소 아이공, 서울, 한국)

비디오 / 미디어 페스티벌 *Video Media Selected*

2023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 (순천, 한국)
2021 오타와 한국 영화제 2021 Ottawa - Korean Film Festival (OKFF) (오타와, 캐나다)
2016 서울 독립 영화제 (롯데시네마, 서울, 한국)
2015 EXIS 2015 - 서울 국제 실험영화 페스티벌 (한국영상자료원, 서울, 한국)
2012 EXIS 2012 - 서울 국제 실험영화 페스티벌 (한국영상자료원, 서울, 한국)
2011 제11회 서울 뉴미디어 페스티벌-특별초대전 (서울, 한국)
아이공 10주년 기념전-한국 뉴미디어아트의 십년 (아이공, 서울, 한국)
2010 제10회 서울 뉴미디어 페스티벌-전시부문 (서울, 한국)
EMAF 2010 - European Media Art Festival 2010 (오스나브뤼크, 독일)
2009 제1회 Off and Free 필름 페스티벌 (한국영상자료원, 서울, 한국)
EXIS 2009 - 서울 국제 실험영화 페스티벌 (서울아트시네마, 서울, 한국)
제9회 서울 뉴미디어 페스티벌 (서울, 한국)
2008 EXIS 2008 - 서울 국제실험영화 페스티벌 (서울아트시네마, 서울, 한국)
2007 24th 카셀 도큐멘터리 앤드 비디오 페스티벌 (카셀, 독일)
2005 EMAF 2005 - European Media Art Festival 2005 (오스나브뤼크, 독일)

수상 및 기금 *Award/Fund*

2021 RE:SEARCH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 한국)
2011 SeMA 서울시립미술관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 선정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07 문화예술 진흥기금 국제문화 예술교류 지원 (서울, 한국)
헤쎈주 단편실험영화 진흥기금 지원 (헤쎈, 독일)
2006 문화예술 진흥기금 국제문화 예술교류 지원 (서울, 한국)
카셀 대학 프로젝트 제작 지원 (카셀, 독일)

레지던시 *Residency*

2012 바이칼 노마딕 레지던시 프로그램 - 바이칼 호수, 러시아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바이칼, 러시아)
2010 군산 아트 국제 레지던시 (군산, 한국)

작품 소장 *Collection*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 한국)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한국)